

아이 앞으로 든 보험은 성인 보장까지 넓어졌다

태아 특약과 어린이보험의 가입 시기·만기·갱신 구조를 법령과 공시 화면으로 따라간다

2025년에 태어난 아이는 25만 4,500명이다. 상법은 15세가 안 된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보험을 회사끼리 견줄 때 100세만기와 20년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비교의 필수 가입담보에는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비와 수술비가 들어 있다.

보험연구원은 2011년에 한 생명보험회사를 시작으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이 주류가 됐다고 적었다. 그전에는 대개 30세 만기였다. 아이 앞으로 드는 보험의 만기가 왜 백 살까지 가는가.

연구소는 이 상품의 크기를 정한 것이 아이의 위험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보장의 범위라고 본다. 사망보장을 막은 조문이 진단비와 수술비를 늘리는 쪽으로 상품을 밀었다. 이름을 거는 규제는 상품 구조에 닿지 않았다. 2026년 4월부터는 형제나 자매를 낳은 가정과 육아휴직 가정에 보험료를 1~5% 깎아 준다.

발행일	자료 기준일	분량
2026년 9월 1일	2026년 8월 31일	PDF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보험 가입 권유가 아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 내용은 그 계약의 약관에 따른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아이 앞으로 드는 보험의 만기가 왜 100세까지 가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15세가 안 된 아이에게는 사망보장을 붙이지 못한다. 팔 수 있는 것은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다. 담보를 늘리고 만기를 늘리면 같은 아이 한 명에게 붙는 월 보험료가 커진다. 손해보험협회의 비교 기준은 100세만기와 20년납이다. 이름을 겨누는 규제는 구조에 닿지 않았고, 회사들은 이름을 바꾼 뒤 가입나이를 더 넓혔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청약서에서 만기와 납입기간을 찾아 적는다. 월 보험료에 납입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적어 둔다. 특약마다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는지 본다. 이미 든 계약은 '내보험 찾아줌'에서 세고, 보장내역과 실손 중복가입은 '내보험 다보여'에서 본다.

한눈에

만기와 갱신 여부가
총납입액을 가른다.
청약서에서 볼 칸은 만기,
납입기간, 갱신형 표시
셋이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태아보험은 따로 있는 상품이 아니다. **어린이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을 붙여 임신 중에 드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둘을 한 상품으로 다룬다.
- 법 조문 번호는 본문에 적지 않고 각주로 내렸다.
- 특정 회사와 상품의 이름은 본문에 적지 않고 자료 출처에만 적었다.
-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에서 옮긴 값은 어느 매체인지 각주에 적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그 자리에서 밝혔다.

차례

1장	태어나기 전에 드는 보험	3
2장	무엇을 사고 얼마를 내는가	4
3장	만기는 어떻게 100세까지 늘어났나	7
4장	무엇을 못 받는가	11

5장	갱신형과 비갱신형	13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5
부록 가	용어 풀이	18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18

1장

태어나기 전에 드는 보험

이 상품은 무엇이고, 왜 담보가 그렇게 많은가.

254,500명 2025년에 태어난 아이. 1년 전보다 1만 6,100명 늘었다 2025년 잠정치 · 국가데이터처	15세 이 나이가 안 된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다 2026년 8월 기준 · 상법	100세만기 어린이보험을 회사끼리 견줄 때 쓰는 기준 만기 같은 시점 · 손해보험협회 공시
---	--	--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은 따로 없다

법제처 안내 화면은 태아보험을 이렇게 적었다. 출산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아이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려고 태아 관련 특약을 넣어 드는 보험이다.¹

특약의 예로 선천성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주산기질환을 들었다.¹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은 어린이보험을 이렇게 적었다. 태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성장기 자녀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²

2025년에 태어난 아이는 25만 4,500명이다. 1년 전보다 1만 6,100명, 6.8% 늘었다.³

하루 700명꼴이다. 첫째아가 1만 2,600명, 둘째아가 3,400명 늘었다.³

사망보장을 붙이지 못한다

상법은 15세가 안 된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⁴

조문의 단서는 심신박약자에게만 걸린다. 15세 미만에게는 예외가 없다.⁴

그래서 어린이보험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다.

15세가 안 된 아이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붙이지 못한다. 팔 수 있는 것은 살아 있는 동안의 보장뿐이다.

태아 특약

선천성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주산기질환
같은 출산 관련 위험을 담는
특별약관이다. 임신 중에만
붙일 수 있다.

큰 보험금 하나로 묶는 길이 막히면 담보를 여럿 붙이는 쪽으로 상품이 커진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보험을 회사끼리 견줄 때 100세만기와 20년납을 기준으로 삼는다.⁵

100세 만기는 몇몇 회사만 파는 예외가 아니다. 비교의 출발선이다.⁵

아이 앞으로 드는 보험의 만기가 왜 백 살까지 가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아이 앞으로 든 계약이 몇 건인지 센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내보험 찾아줌'. 아이가 피보험자이고 내가 계약자인 계약이 나온다

2 보험증권 첫 장에서 만기가 몇 세로 적혀 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증권의 계약사항 칸. 종이 증권이 없으면 회사 앱의 계약조회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임신 22주가 지났으면 태아 특약은 붙이지 못한다.
그렇다고 어린이보험 자체를 못 드는 것은 아니다.

2장

무엇을 사고 얼마를 내는가

언제까지 들 수 있고, 만기와 납입기간은 총액을 어떻게 가르는가.

22주 태아 특약을 붙일 수 있는 임신 기간의 끝 2026년 8월 기준 · 법제처 안내 화면	20년납 어린이보험 비교공시의 납입기간 기준 같은 시점 · 손해보험협회 공시	1,000만원 비교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 가운데 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같은 시점 · 같은 공시
--	---	---

언제까지 들 수 있는지는 자료마다 다르다

법제처 안내 화면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를 나눠 적었다.
손해보험회사는 임신 직후부터 22주 안이다.⁶

생명보험회사는 임신 16주부터 22주 안이다.⁶

이 기간이 지나도 보험에는 든다. 다만 태아 특약을 붙이지 못한다.⁶

한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 채널 상품안내 화면은 임신 12주 이내 가입으로 적었다.⁷

같은 회사의 온라인 채널 화면은 일부 담보에만 임신 22주 이내 조건을 적었다.⁸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 계열인데 화면마다 적힌 기한이 다르다.

<표 1> 태아 특약을 붙일 수 있는 기한이 자료마다 다르다

태아 특약 가입 가능 시기 (2026년 8월 기준)

어느 화면인가	언제까지 들 수 있나
법제처 안내 화면 · 손해보험회사	임신 직후부터 22주 안
법제처 안내 화면 · 생명보험회사	임신 16주부터 22주 안
한 손해보험회사 · 설계사 채널	임신 12주 이내
한 손해보험회사 · 온라인 채널	일부 담보만 임신 22주 이내

주: 1) 아래 두 줄은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 계열이고 파는 통로가 다르다.^{7,8}

2) 회사와 상품 이름은 본문에 적지 않고 자료 출처에 적었다.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정보와 한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안내 화면을 정리.

만기와 납입기간은 다른 값이다

만기는 보장이 끝나는 나이다. 30세 만기는 서른 살까지 보장한다.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20년납은 스무 해 동안 낸다는 뜻이다.

둘은 따로 정한다. 만기를 100세로 하고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할 수 있다.

100세 만기는 30세 만기보다 보장 기간이 세 배 넘게 길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 채널 상품은 만기를 10세부터 100세까지 여섯 가지로 두었다.⁷

같은 상품에서 갱신형 담보의 만기는 5년, 10년, 20년이다.⁷

가입나이는 0세부터 15세까지다.⁷

어린이보험을 건주는 표준 조건에 성인에게 흔한 병의 진단비가 들어 있다. 이 목록은 아이의 병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온라인 채널의 태아 가입형은 30세 만기다. 만기에 계약을 바꾸면 100세까지 이어 갈 수 있다. 계약전환 대상 담보만 해당한다.⁸

<표 2> 회사끼리 견주는 표준 조건에 성인 질환 담보가 들어 있다

어린이보험 비교공시의 표준 가입조건 (2026년 8월 기준)

항목	기준
보험기간	100세만기. 최장만기가 100세 미만이면 최장만기
납입기간	20년납
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후유장해	1,000만원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원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	500만원
입원비	4만원
배상책임	1억원

주: 1) 진단비의 암에서 소액암은 뺀다. 그 밖의 담보는 회사별 최고 인수한도를 적용한다.⁵
2) 년만기 담보와 갱신형 담보는 최장만기와 전기납·20년납 가운데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⁵
자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상품비교공시 어린이보험 가입기준 화면을 일부 수정.

총납입액은 곱셈으로 나온다

총납입액은 월 보험료에 납입 개월 수를 곱한 값이다.

월 5만원에 20년납이면 1,200만원, 월 8만원이면 1,920만원이다. 둘의 차이는 720만원이고 총액으로는 1.6배다.⁹

20년납이면 만기가 30세든 100세든 내는 기간은 스무 해로 같다.

만기를 늘려도 내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 커지는 것은 매달 내는 금액이다.

회사별 예시 월보험료를 확인하지 못해 100세 만기와 30세 만기의 총납입액 차이를 값으로 적지 않았다.¹⁰

<표 3> 총납입액은 월 보험료와 납입 개월 수의 곱이다

납입기간과 월 보험료에 따른 총납입액 (계산 예시)

월 보험료	납입기간	총납입액
5만원	20년납	1,200만원
8만원	20년납	1,920만원
5만원	30년납	1,800만원

주: 1) 이 표의 월 보험료는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니라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값이다.⁹

2)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가 오르면 실제 총액은 이 값보다 커진다.

자료: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청약서에서 만기와 납입기간 두 칸을 찾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청약서 첫 장의 계약사항 칸. 보험기간이 만기이고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2 월 보험료에 납입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청약서의 보험료 칸. 20년납이면 240을 곱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납입기간이 같으면 만기를 늘려도 내는 기간은 늘지 않는다. 만기를 늘릴지 정할 때 볼 값은 매달 내는 금액이다.

3장

만기는 어떻게 100세까지 늘어났나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2000년

태아 관련 담보를 도입해
어린이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키운 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

2006년

어린이보험 암 보장 90일 부담보
기간을 없앤 해
같은 보고서

2011년

100세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이
주류가 된 해
같은 보고서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출발점은 상법이다. 15세가 안 된 아이에게는 사망보장을 붙이지 못한다.⁴

팔 수 있는 것은 진단비와 수술비다. 담보를 더할수록 보험료가 커진다.

회사끼리 견주는 표준 조건에 성인에게 흔한 병의 진단비가 들어 있다.⁵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 그렇다.⁵

만기를 30세에서 100세로 늘리면 같은 아이 한 명에게 붙는 월 보험료가 커진다.

판매하는 쪽이 받는 돈도 월 보험료에 연동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냈다.¹¹

선지급 수수료를 제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새로 두는 내용이다. 유지 기간은 최대 7년이다.¹¹

같은 방안에서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까지 넓혔다.¹¹

이 규칙은 계약 첫해에 설계사에게 줄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다.¹¹

월 보험료가 크면 첫해에 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도 함께 커진다.

다만 어린이보험 상품군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율은 확인하지 못했다.¹²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수수료가 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만들어 판다. 미리 신고하는 경우는 한정돼 있다.¹³

신고 대상이 아니면 회사가 원칙을 지켜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¹⁴

감독당국이 들어가는 자리는 자료 제출 요구다. 이미 팔린 뒤다.¹³

가입나이를 넓히는 변경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다.¹⁴

2023년 금융감독원은 최대 가입나이가 만 15세를 넘는 상품에 '어린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¹⁵

2023년 9월부터 적용했다. 어린이에게 드문 성인 질환 담보가 들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¹⁵

2011년 이전 어린이보험은 대개 30세 만기였다. 만기가 백 살까지 늘어난 것은 아이의 위험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부담보 기간

계약을 하고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 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 앞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최대 가입나이를 2018년 만 30세에서 2022년 35세까지 넓혀 두었다.¹⁵

이것은 상품 이름에 건 규제다.

성인이 그 상품에 드는 것을 막은 규제가 아니다.¹⁵

3년이 지난 2026년, 회사들은 이름을 바꾼 뒤 가입나이를 더 넓혔다.¹⁶

한 손해보험회사는 가입 가능 나이를 40세에서 50세로 올렸다.¹⁶

다른 두 회사는 5세부터 40세까지 들 수 있는 상품을 팔고 있다.¹⁶

공식 상품명은 성인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다.¹⁶

모집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보험이라는 말을 쓴다.¹⁶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험연구원은 2018년 연구보고서에서 어린이보험의 성장 과정을 정리했다.¹⁷

국내 교육보험의 시초는 1958년 7월에 나온 한 회사의 진학보험이다.¹⁷

1990년 이후 교육보험은 서서히 사라졌다. 물가와 대학 입학금이 오르고 관심이 공교육비에서 사교육비로 옮겨 간 것이 이유다.¹⁷

1997년에 어린이 보장성 상품 시장이 열렸다.¹⁷

2000년 이후 회사들은 태아보험과 어린이 중대질병 담보를 도입했다.¹⁷

이 담보가 어린이보험을 주력 상품의 하나로 키웠다.¹⁷

2006년에는 암 보장의 90일 부담보 기간이 사라졌다.¹⁷

위험률이 낮아 역선택 우려나 위험률차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¹⁷

2011년에 한 생명보험회사를 시작으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주류가 됐다.¹⁷

그전에는 대개 30세 만기였다. 2011년 뒤로는 서른 살을 전후로 성인 보장을 덧붙여 100세까지 늘렸다.¹⁷

규칙이 상품을 바꾼 예는 2006년에도 있었다. 부담보 기간이 사라지자 보장이 앞당겨졌다.¹⁷

규제는 상품 이름에 걸렸다.
회사는 이름을 바꾸고
가입나이를 더 넓혔다.

<표 4> 만기는 60년에 걸쳐 서른 살에서 백 살로 늘어났다

어린이보험의 보장 범위와 관련 규칙의 변화 (1958년~2026년 8월)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엇이 달라졌나
1958년 7월	한 회사가 진학보험을 냈다. 국내 교육보험의 시초다	학자금을 모으는 상품
1990년 이후	물가와 대학 입학금이 올라 교육보험이 서서히 사라졌다	보장성 상품으로 옮겨 갔다
2000년 이후	태아보험과 어린이 중대질병 담보를 도입했다	임신 중에 드는 상품이 됐다
2006년	어린이보험 암 보장의 90일 부담보 기간을 없앴다	보장 시작이 앞당겨졌다
2011년	한 생명보험회사를 시작으로 100세 보장이 주류가 됐다	30세 만기에서 100세 만기로
2018년~2022년	손해보험회사들이 최대 가입나이를 30세에서 35세로 넓혔다	성인이 드는 상품이 됐다
2023년 9월	가입나이가 만 15세를 넘는 상품에 '어린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이름만 바뀌었다
2026년	상품명을 성인 건강보험으로 바꾸고 가입나이를 40~50세로 넓혔다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주: 1) 1958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서술에 따른다.¹⁷

2) 2018년 이후 가입나이 변화와 2023년 조치, 2026년 상황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15,16}

자료: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와 관련 보도를 시점 순으로 정리.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2025년 6월 방안은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2026년 1월로 잡았다.¹¹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¹⁸

비교공시는 2026년 3월부터 적용한다. 계획한 시기와 실제 시행일이 다르다.¹⁸

분급제는 2027년 1월, 보험대리점 확대는 2026년 7월이다.^{11,18}

어린이보험 자체를 겨누는 규칙은 2026년에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저출산 극복 지원 방안을 냈다.¹⁹

2026년 4월 1일부터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5% 깎아 준다. 할인 기간은 1년이다.¹⁹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¹⁹

출산을 이유로 받는 할인은 형제나 자매를 낳은 경우다. 그 계약의 피보험자인 아이를 낳은 것은 할인 사유에서 뺐다.¹⁹

금융위원회는 연 1,200억원 규모의 부담 완화 효과를 적었다.¹⁹

100세 만기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규칙은 그 보험료를 깎아 주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지금 든 계약의 최대 가입나이가 몇 세인지 상품설명서에서 찾는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의 가입나이 칸. 15세를 넘으면 성인 보장을 담은 상품이다

2 형제나 자매를 낳았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지 회사에 묻는다.

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할인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름에 '어린이'가 없다고 성인 보장이 빠진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름에 '어린이'가 있어도 만기가 100세일 수 있다. 이름이 아니라 만기와 가입나이를 본다.

4장

무엇을 못 받는가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걸리지 않는가.

0세

보험나이의 시작. 출생일에 0세가 되고 1년 뒤 1세가 된다

2026년 8월 기준 · 한 손해보험회사 안내 화면

2012년

감독당국이 다태아 인수거절을 막도록 계약인수기준을 바꾸게 한 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

2019년

대법원이 태아를 상해보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해

2019년 3월 28일 선고 · 판결문

보험료를 두 번 매긴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안내 화면은 태아일 때의 보험료 처리를 이렇게 적었다.²⁰ 계약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이면 출생 시점까지는 태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적용한다.²⁰ 출생 예정일이 되면 그다음 회차부터 보험나이 0세

청약한 날과 보장이 시작되는 날은 다르다. 태아 특약을 둘러싼 다툼은 이 차이에서 나왔다.

기준으로 바꾼다.²⁰ 계약할 때 적은 성별과 출생 예정일이 실제와 다르면 보험료를 정산한다.²⁰

임신과 출산 자체는 보장하지 않는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온라인 채널 유의사항 화면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셋으로 적었다.²¹

임신, 출산, 산후기다. 출산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다.²¹

한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 채널 상품안내 화면에는 태아 관련 담보 넷이 있다.²² 저체중아 출생, 선천장해 출생, 저체중아 입원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이다.²² 저체중아 출생 담보는 태어난 아이의 몸무게가 2,500g 이하일 때 보장한다.²²

태아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다투었다

2011년 8월에 맺은 계약이 있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이다.²³

2012년 1월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뇌를 다치고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²³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²³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에도 보호할 법익이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런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²³

쌍둥이를 두고도 다투었다. 한 약관은 복수로 태어나면 호적상 선순위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적었다.²⁴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이 조항이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빼는 규정은 아니라고 읽었다.²⁴ 같은 해 감독당국은 다태아와 인공수정 태아의 인수거절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인수기준을 바꾸게 했다.²⁵

확인하지 못한 것

선천성 뇌질환과 정신 및 행동장애, 유산과 사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각각 매체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²⁶ 약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그 범위를 값으로 적지 않는다. 계약한 회사의 약관에서 태아 관련 특별약관을 직접 읽는 편이 낫다.

보험나이

약관이 정한 나이 계산 방식이다. 태어난 날에 0세가 되고 1년이 지나면 1세가 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약관에서 태아 관련 특별약관의 이름을 찾아 보장 개시일을 읽는다.

확인하는 곳 · 약관 목차의 특별약관 목록. 회사 누리집의 상품공시실에서 내려받는다

2 출생 예정일과 성별을 청약서에 적은 대로 다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청약서의 피보험자 칸. 실제와 다르면 출생 뒤 보험료를 정산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임신과 출산 자체에 드는 비용은 이 특약으로 받지 않는다. 그 비용을 이 특약에서 받으려고 담보를 더 붙일 이유는 없다.

5장

갱신형과 비갱신형

한 계약 안에서 보험료가 어떻게 갈리고, 무엇이 아직 막히지 않았는가.

0.4%

2026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을 가운데 공시된 가장 낮은 값
전체 합계 기준 · 손해보험협회 공시

101.5%

같은 공사에서 가장 높은 값
같은 기준 · 같은 공시

16곳

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보험을 팔기 시작한 보험회사
2026년 5월 4일 발표 · 금융위원회

한 계약 안에 두 방식이 섞여 있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 보장내용 자료를 보면 갱신형이라고 적힌 특약이 열넷이다.²⁷ 자녀만의 배상책임과 특정 감염병 진단비가 갱신형이다.²⁷ 특정 심장판막질환 진단비,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환경성질환 입원일당도 갱신형이다.²⁷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한 담보 셋도 갱신형이다.²⁷ 표적항암약물 치료비를 비롯한 항암 치료비 담보 여섯도 갱신형이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에는 갱신형 표시가 없다.²⁷

청약서에 적힌 총납입액은 갱신형 특약의 인상분을 넣지 않은 값이다.

청약서에 적힌 총납입액은 갱신형 특약의 인상분을 넣지 않은 값이다. 한 계약 안에 두 방식이 섞여 있다.

실손 특약이 붙어 있으면

실손 특약의 보험료는 해마다 다시 매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2026년 인상률이 나온다.²⁸ 회사별 전체 합계 기준으로 0.4%에서 101.5%까지다.²⁸ 공시에 오른 17개 회사의 중앙값은 17.9%, 평균은 22.1%다.²⁹

여기서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쓴다. 한 회사의 101.5%가 평균을 끌어올린다.²⁹ 중앙값 17.9%가 해마다 이어진다고 보면 다섯 해 뒤 보험료는 2.3배가 된다.²⁹ 열 해면 5.2배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오른다고 놓고 계산한 값이다.²⁹ 이 값은 공시 화면의 표준화실손의료보험 표에서 회사별 전체 합계 줄을 옮긴 것이다.²⁸

<표 5> 열일곱 회사 가운데 열넷이 2026년에 15% 넘게 올렸다

2026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분포 (회사별 전체 합계 기준)

2026년 인상률	회사 수
10% 미만	2
10% 이상 20% 미만	8
20% 이상 25% 미만	6
25% 이상	1

주: 1) 공시 화면의 회사별 전체 합계 인상률을 구간으로 나눠 센 값이다.²⁹

2) 25% 이상은 한 곳이고 그 값은 101.5%다.²⁸

자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를 일부 수정.

실손을 두 개 들어도 더 받지 못한다

2026년 5월 6일 16개 보험회사가 5세대 실손보험을 팔기 시작했다. 한 곳은 전산 준비를 이유로 6월 1일로 미뤘다.³⁰ 생명보험 7개사, 손해보험 9개사다.³⁰ 금융위원회는 5세대 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싸다고 적었다.³⁰

전환은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 보장 종목을 넓히는 때처럼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³⁰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전환을 철회하고 원래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³⁰

실손 특약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³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실손 중복가입자의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겠다고 적었다. 비례보상 기준을 손보는 일이다.³¹ 아이 앞으로 실손을 두 건 들면 보험료는 두 몫을 낸다. 의료비를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니다.³¹

아직 막히지 않은 곳

갱신형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이 갱신 때 얼마나 오르는지 보이는 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³² 실손 특약의 인상률은 협회 공시로 볼 수 있다. 나머지 갱신형 특약은 그렇지 않다.³² 계약자가 20년 뒤 총액을 계산할 근거가 지금은 없다.

2025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이 있었다.³³ 민간자격 치료사가 한 발달치연 놀이치료에는 실손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³³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는 다른 영역이라고 판단했다.³³

1심 판결이고 그 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³³ 한 손해보험회사는 2023년 5월부터 민간자격자의 치료에 지급을 중단했다.³³ 계약할 때 보장한다고 읽은 범위와 나중에 받는 범위가 갈릴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특약 목록에서 '갱신형'이라고 적힌 줄에 표시를 한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의 담보별 보험료 표. 특약 이름 뒤 괄호에 적혀 있다

2 아이 앞으로 실손 특약이 두 건 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내보험 다보여'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아이 앞으로 실손 특약을 하나 더 붙일 이유는 없다. 두 건을 다 유지해도 의료비를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니다.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1~5%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폭.
2026년 4월 1일부터 1년간
2026년 3월 31일 발표 · 금융위원회

2006년

'내보험 다보여'가 조회하는 생명·
손해보험 가입상품의 시작 연도
2026년 8월 기준 · 금융감독원 안내

6개월

5세대 실손으로 바꾼 뒤 되돌릴 수
있는 기간
같은 시점 · 금융위원회

두 화면이 보여 주는 것이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내역을 보는 화면 둘을 안내한다. '내보험 찾아줌'은 지금 유지 중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보여 준다.³⁴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도 함께 나온다.³⁴ 만기 후 3년이 지난 보험은 빠진다.³⁴ 본인이 피보험자이거나 계약자인 경우만 조회한다.³⁴ 이 화면에 보장내역은 나오지 않는다.³⁴

'내보험 다보여'는 보장내역과 남은 보장기간을 보여 준다.³⁵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 보장금액과 견줄 수 있다.³⁵ 실손의료비 가입률과 중복가입도 이 화면에서 확인한다.³⁵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2006년 이후, 공제는 2009년 이후 가입상품이 대상이다.³⁵

<표 6> 중복가입은 '내보험 다보여'에서 확인한다

보험 가입내역을 보는 두 화면의 차이 (2026년 8월 기준)

화면	무엇이 나오나	무엇이 안 나오나
내보험 찾아줌	유지 중인 가입내역, 아직 못 받은 보험금	보장내역. 만기 후 3년이 지난 보험
내보험 다보여	보장내역, 남은 보장기간, 실손 중복가입	2006년 이전 가입 보험. 2009년 이전 공제

주: 1) 두 화면 모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계약만 조회한다.^{34,35}

2) 아이 앞으로 든 계약은 계약자인 부모가 조회한다.³⁴

자료: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과 '내보험 다보여' 안내 화면을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아이 앞으로 든 계약을 한 번에 세고 종이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내보험 찾아줌'에서 계약 목록을 뽑는다

2 보장내역과 실손 중복가입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내보험 다보여'의 보장내역 조회와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

3 청약서에서 만기, 납입기간, 갱신형 표시 세 칸을 읽는다.

확인하는 곳 · 청약서 계약사항 칸과 담보별 보험료 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든 계약을 깨고 새로 들 필요는 없다. 계약을 다시 짜면 면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고 해약환급금에서 손실이 난다.

중복가입을 확인하는 자리는 '내보험 찾아줌'이 아니라 '내보험 다보여'다. 두 화면이 보여 주는 것이 다르다.

국민이 할 일

청약서에서 만기와 납입기간을 찾아 적고 월 보험료에 납입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계산한다. 특약 목록에서 갱신형 표시를 확인하고, 그 특약의 인상분이 총액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 임신 중이라면 태아 특약 기한을 화면마다 확인한다. 이미 든 계약은 '내보험 찾아줌'에서 세고 보장내역과 실손 중복가입은 '내보험 다보여'에서 본다.^{6,20,34,35}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청약서에 적는 총납입액 옆에 갱신형 특약이 그 값에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같은 크기로 적는다. 둘째, 상품안내 화면의 태아 특약 가입 기한을 통로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셋째, 만기를 100세로 고를 때와 30세로 고를 때의 월 보험료를 한 화면에서 견주게 한다. 넷째, 모집 현장에서 쓰는 명칭과 공식 상품명이 다르면 그 사실을 청약 단계에서 알린다.^{7,8,16,27}

당국이 할 일

첫째, 갱신형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의 갱신 때 인상 폭을 실손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하게 한다. 둘째, 어린이보험 비교공시의 회사별 예시 월보험료를 화면에서 바로 읽게 한다. 셋째, 상품명 규제가 판매 현장의 명칭 사용에도 닿는지 점검한다. 넷째, 어린이보험 상품군의 판매수수료율을 공시 항목에 넣는다.^{5,10,12,16,32}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2026년 4월에 시작한 보험료 할인이 1년 뒤에도 이어지는지다. 발표 자료에는 할인 기간이 1년으로만 적혀 있다. 둘은 상품명 규제가 판매 현장의 명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다. 셋은 발달 지연 치료비의 보장 범위이고, 2025년 4월 1심 판결 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셋 모두 금융위원회 발표와 감독규정 개정, 판결 공개를 보면 알 수 있다.^{16,19,33}

연구소는 이 상품의 크기를 정한 것이 아이의 위험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보장의 범위라고 본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태아 특약

어린이보험에 붙이는 특별약관이다. 선천성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주산기질환 같은 출산 관련 위험을 담는다. 임신 중에만 붙일 수 있다.

만기와 납입기간

만기는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고,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둘은 따로 정한다.

갱신형

정해진 주기마다 그 시점의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방식이다. 비갱신형은 만기까지 보험료가 그대로다.

부담보 기간

계약을 하고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 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다.

보험나이

약관이 정한 나이 계산 방식이다. 태어난 날에 0세가 되고 1년 뒤에 1세가 된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2026년 8월 31일에 확인했다.

1.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2조. law.go.kr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EC%83%81%EB%B2%95&joNo=073200>)
· 확인 2026.08.31
2.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27조·제12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law.go.kr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EB%B3%B4%ED%97%98%EC%97%85%EB%B2%95&joNo=012700>) · 확인 2026.08.31
3.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law.go.kr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6317>)
· 확인 2026.08.31
4. **[1차]** 보험분쟁 판례 화면,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koicd.kr
(<https://www.koicd.kr/brd/precedentDetail.do?precId=164078>) · 확인 2026.08.31
5.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 「임산부 · 태아 보호하기 · 태아보험 가입」. easylaw.g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2&cciNo=4&cnpClsNo=3>) · 확인 2026.08.31
6. **[1차]**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상품비교공시 · 장기보장성보험 · 어린이보험. kpub.knia.or.kr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ngTermGuarantee/juvenileInsurance.do>)
· 확인 2026.08.31

7. **[1차]**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표준화실손의료보험 화면). kpub.knia.or.kr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IncreaseRate.do>)
· 확인 2026.08.31
8. **[1차]**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6년 2월 25일 발표. mods.go.kr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43686)
· 확인 2026.08.31
9. **[1차]** 금융위원회 보험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2026년 3월 31일 발표. fsc.go.kr
(<https://www.fsc.go.kr/po010101/86598>) · 확인 2026.08.31
10. **[1차]**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년 6월 2일 발표.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4721>) · 확인 2026.08.31
11. **[1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세대 실손보험 판매 개시 보도자료, 2026년 5월 4일 발표.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6831>) · 확인 2026.08.31
12. **[1차]**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 안내 화면. fss.or.kr
(<https://fss.or.kr/main/prc/is/sub/is006.jsp?menuNo=900395>) · 확인 2026.08.31
13. **[1차]** 금융감독원, 「내보험 다보여」 안내 화면. fss.or.kr
(<https://www.fss.or.kr/main/prc/is/sub/is007.jsp?menuNo=900396>) · 확인 2026.08.31
14. **[2차]**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 「Ⅷ. 어린이보험의 성장」. kiri.or.kr
(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nre2018-05_08.pdf)
· 확인 2026.08.31
15. **[1차]** 현대해상,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607) 상품안내(설계사 채널) m.hi.co.kr
(<https://m.hi.co.kr/serviceAction.do?menuId=929000>),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태아)
온라인 채널 안내 direct.hi.co.kr (<https://direct.hi.co.kr/service.do?m=f62923f323>)
· 확인 2026.08.31
16. **[1차]** NH농협손해보험, 어린이보험 보험나이 계산 안내 화면. nhfire.co.kr
(https://nhfire.co.kr/jsp/front/direct/service/customer/scrtBnk_children_02.jsp)
· 확인 2026.08.31
17. **[1차]** 하나손해보험, 어린이보험 보장내용 자료. m.hanainsure.co.kr
(<https://m.hanainsure.co.kr/download/prd?instype=60644&type=guaran>)
· 확인 2026.08.31
18. **[2차]** 김·장,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
(2026.1.19). kimchang.com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3922) · 확인 2026.08.31

각주

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정보의 태아보험 화면.
태아 관련 특약의 예로 선천성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주산기질환을 들었다.
2.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어린이보험 화면에
적힌 정의다.
3.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 「2025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2026년 2월 25일 발표한
잠정치다. 하루 700명꼴은 25만 4,500명을
365일로 나눈 값이다.
4. 「상법」 제732조. 조 제목은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다. 단서는
심신박약자에게만 걸리고 15세미만자에게는
예외가 없다. 화면에 적힌 시행일은 2026년
3월 6일이다.
5.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어린이보험 가입기준
화면. 보험기간은 100세만기, 최장만기가
100세 미만이면 최장만기이고 납입기간은
20년납 기준이다. 월보험료는 필수 가입담보
보장보험료 기준이다.
6. 법제처 화면. 손해보험회사는 임신 직후부터
22주 내, 생명보험회사는 임신 16주부터
22주 내로 적혀 있다. 그 뒤에도 보험 가입은
되지만 태아 특약에는 들 수 없다고 적었다.
7. 한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 채널 상품안내
화면. 임신 12주 이내 가입, 가입나이 0세
~15세, 만기 10·20·30·80·90·100세,
갱신형 담보 만기 5·10·20년으로 적혀 있다.

8. 같은 회사의 온라인 채널 태아 가입형 안내 화면. 일부 담보는 임신 22주 이내만 가능하고, 30세 만기이며, 계약전환 대상 담보에 한해 최대 100세까지 이어 갈 수 있다고 적혀 있다.
9.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5만원 × 12개월 × 20년 = 1,200만원. 8만원 × 12개월 × 20년 = 1,920만원. 5만원 × 12개월 × 30년 = 1,800만원. 1,920만원 - 1,200만원 = 720만원.
10. 회사별 예시 월보험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범위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어린이보험 가입기준 화면과 그 화면이 여는 비교공시표다.
11.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선지급 수수료 제한, 계약 유지기간 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주는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1,200% 규칙의 보험대리점 확대, 협회 누리집 비교공시와 5단계 수수료 등급 공개가 담겼다.
12. 어린이보험 상품군의 실제 판매수수료율을 밝힌 공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범위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공시 항목 목록이다.
13.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은 한정된 경우에만 미리 신고하게 하고, 제3항은 자료 제출 요구를 정한다. 화면에 적힌 시행일은 2025년 1월 31일이다.
14. 「보험업법」 제128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신고 대상을 별표 6으로 정하고,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변경은 뺀다. 별표 6의 개별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15. 2023년 조치는 보험저널·뉴스·데일리팩트·투데이신문 보도에 따른다. 상품 심사 단계의 지도로 보이며 감독당국 발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치의 대상은 상품명이고 성인의 가입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다.
16. 아시아투데이(2026.4.9)와 투데이신문(2026.7.7) 보도. 회사 이름과 상품 이름은 두 보도에 나온다.
17.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 「Ⅷ. 어린이보험의 성장」. 1958년 진학보험, 2000년 이후 태아보험 담보 도입, 2006년 90일 부담보 삭제, 2011년 100세 보장의 주류화가 이 보고서의 서술이다.
18. 김·장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2026년 1월 19일). 개정안은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고 비교공시는 2026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19. 금융위원회 보험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2026년 3월 31일 발표·4월 1일 시행. 할인 폭 1~5%, 기간 1년, 기대 효과 연 1,200억원이다. 출산 할인은 형제·자매 출산이고 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었다.
20. 한 손해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 보험나이 계산 안내 화면. 태아위험보장 보험료 적용, 출생 예정일 이후 보험나이 0세 기준 적용, 성별과 출생일 차이에 따른 정산이 적혀 있다.
21. 한 손해보험회사의 온라인 채널 유의사항 화면.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22. 한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 채널 상품안내 화면. 태아 관련 담보로 저체중아출생, 선천장해출생(1~3종), 저체중아입원일당, 신생아질병입원일당이 적혀 있고, 저체중아는 2,500g 이하로 적었다.
23.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계약 체결 2011년 8월, 사고 2012년 1월이다.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24.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약관 문구는 복수로 출생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내용이다. 판결문 원문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고 보험분쟁 판례 화면에서 확인했다.
25.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의 각주가 적은 금융감독원 2012년 9월 11일 보도자료에 따른다. 쌍둥이의 태아보험 가입을 다룬 자료다. 보도자료 원문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26. 선천성 뇌질환과 정신 및 행동장애 면책, 유산·사산 관련 서술은 각각 매체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두 번째 매체와 약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7. 한 손해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 보장내용 자료. 담보 이름 뒤에 (갱신형)이 붙은 특약이 14개다. 이 자료에 상품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
28. 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의 표준화실손의료보험 화면. 회사별 전체 합계(3대비급여 포함) 줄의 2026년 값이다. 화면 주석은 직전연도말 대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성별·연령별 영업보험료 인상률에 직전연도 보험료수익 비중을 곱해 산정한다고 적었다.
29.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공시된 17개 회사의 전체 합계 인상률을 늘어놓아 중앙값 17.9%, 평균 22.1%를 얻었다. 1.179의 5제곱은 2.28, 10제곱은 5.19다.

3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5월 4일 보도자료. 판매 개시 2026년 5월 6일, 16개 회사(생명보험 7개사, 손해보험 9개사), 4세대 대비 약 30% 낮은 보험료,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전환 뒤 6개월 이내 철회가 적혀 있다. 신한EZ손보는 6월 1일이다.
3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5월 4일 보도자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실손 중복가입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며 비례보상 관련 기준 정비를 추진한다고 적었다.
32. 갱신형 진단비·수술비 특약의 갱신 때 인상 폭을 보이는 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범위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와 실손 공시 메뉴다.
33. 2025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보험저널 등 보도에 따른다. 판결문 원문과 상급심 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3년 5월 지급 중단도 같은 보도에 따른다.
34.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 안내 화면. 유지 중인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만기 후 3년이 지난 보험은 빠진다. 보장내역은 나오지 않는다.
35. 금융감독원 「내보험 다보여」 안내 화면. 생명·손해보험은 2006년 이후, 공제는 2009년 이후 가입상품이 대상이다. 보장내역, 남은 보장기간,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 항목이 있다.



제목	아이 앞으로 든 보험은 성인 보장까지 넓어졌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76 · NEXUS Research 2026_76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1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아이 앞으로 든 보험은 성인 보장까지 넓어졌다」, 넥서스 리서치 2026_76,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보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는 자료도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개별 계약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그 계약의 약관과 청약서에 따른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